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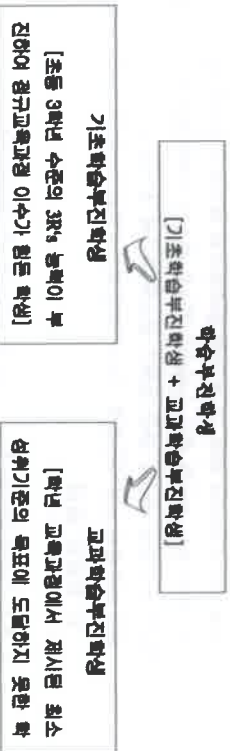
3. 학습 부진학생 지도

내용 목차

- I. 기초학력 책임지도의 대상
- II. 학습부진학생의 이해
- III. 기초학습부진학생 지도를 위한 노력

I. 기초학력 책임지도의 대상

제7차 교육과정이 실시되기 이전에는 기초학력 책임지도 대상이 3RS(읽기, 쓰기, 셈하기) 수준의 부진학생이었으나, 2000년 이후에는 교과별 최소 성취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까지 기초학력 책임지도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학습부진학생이란 지능 발달은 정상인데 학업 성적이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하여 학습을 그 지능 수준의 기능성만큼 성취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을 말하며, 지능이 낮아 학업이 부진한 것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기초학습부진학생은 주로 전형적인 3RS의 기능에 장애를 보이는 학생을 말하며, 교과학습부진학생은 해당 학년 수준에서 요구하는 최소성취기준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

한 학습저성취학생을 말한다.

학습부진학생들은 기초적인 학습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언어 능력, 수리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독서 속도나 수리적인 학습에서 부진한 편이고, 학습 속도가 느리다.

II. 학습부진학생의 이해

1. 학습부진학생의 발생 요인

학습부진학생의 원인은 간단하지 않으나 여러 가지 요인이 중첩되어 학습부진 현상으로 나타난다.

가. 개인적 요인

1) 신체적 요인

- 시력(안시, 근시 등), 청력(난청 등), 지체부자유, 언어 장애, 신체 허약, 질병 등으로 지주 결석을 한 경우 또는 출석을 해도 학업 수행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 신체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열등감이나 불안감

2) 지적 요인

- 지능이 유아기에 지체되었다 하더라도 후에 급속도로 발달하는 만능학생은 그 지능을 제어하지 못할 때 학습 부진의 요인으로 된다.

3) 성격·정서적 요인

- 성격적 결함
- 정서적 결함
- 인내심, 지구력, 집중력 등의 부족

4) 학습 습관

- 학습 계획 부족
- 뒤서 부족
- 자료준비 및 활용 등의 태도
- 학습 준비도 부족

나. 환경적 요인

1) 가정 환경적 요인

- 가정의 경제적 빈곤
- 좋지 않은 직업
- 절손 가족
- 양친의 불화, 비교육적 태도
- 비정상적 가정 분위기

2) 학교 환경적 요인

- 교재의 부적당
- 교사의 교육 방법
- 교우 관계

3) 사회 환경적 요인

- 빈민가, 우범 지대, 주점가, 환락가, 소음지역, 공장지대 등

2. 학습부진학생 지도 방안

학 지 습 도 방

- 원인에 따른 개별 지도가 중요시 되어야 한다.
- 학생의 흥미와 동기유발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 자신감은 자아개념으로 발전하여 학습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으므로 성취감을 주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오류를 철저히 진단하여 치료적 기초 지도에 힘써야 한다.
- 무리하게 서투르지 말아야 한다. 점진적근법을 시도해야 한다.
- 사회적·심리적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 학습 습관이나 방법의 개선에 힘써야 한다.
- 심화, 실습, 발표력 등을 통한 자율적 학습으로 이끌어야 한다.

1) 열등감 해소 방안

교사는 진정한 동반자로서 학생을 위로하고 격려 해주며, 학생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즉, 애정의 욕구, 집단 소속의 욕구, 인정감의 욕구, 사회적 승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또한, 교사는 항상 학생의 편에 있다고 느끼도록 해주어야 하며 현재의 상태만 꾸짖지 말고 내면적 욕구와 흥미가 어디에 있는가를 잘 알아야 한다.

2) 감화의 원리

학교 학습에서 지적 성공감을 느끼지 못한 학습부진학생에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성공적 학습 경험의 횟수를 확대해 주어야 한다.

초기에는 상표, 학용품 같은 구체적인 보상을 해주고 아울러 즉각적인 언어적 보상도 병행하여 해주어야 하며, 그 후 차츰 추상적이며 장기적인 보상을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3) 자아개념의 변화

학습부진학생은 '나는 아무리 해도 공부는 잘 할 수 없다.'라는 식의 학업적 자아개념이 부정적으로 고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성공적 학습 경험을 늘려 줌으로써 '나도 노력하면 된다.'라는 자기 확신 신뢰감을 갖도록 지도해야 한다.

4) 학습부진학생 교수·학습 방법

학습부진학생의 지도는 수업의 개별화가 매우 필요하다. 즉 개별처치 수업방식이 요구된다.

- 수업의 목표를 세분화하고 정기검사를 통하여 학습부진학생이 어떤 기준의 목표에서 학습해 나갈 것인지 정한다.
- 주어진 수업목표 달성에 소요되는 시간량은 개인에 따라 다르며, 학생들은 지기의 필요한 시간에 맞추어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 주어진 목표를 완전히 학습하기 전에는 새로운 목표를 학습할 수 없게 한다.
- 학생들은 주어진 목표의 학습을 위하여 제공되는 학습 자료를 중심으로 스스로 학습하게 한다.
- 개인적 수업 처방을 위하여 평가를 자주 한다.

나. 학습장애와 주의집중 결핍 학생들을 위한 주의 집중 훈련 방법

1) 자기-지시훈련(Self-Instructional Training)이란?

자기-지시훈련(Self-Instructional Training)은 미국의 학생심리학자 마이첵바움(Meichenbaum)에 의해 개발된 인지 재구성적인 자기훈련이다.

Luria는 학생의 언어발달 단계와 학생행동에 대한 언어적·상징적 통제 원리에 관해 내면적 언어의 발달은 먼저 타인의 가르침으로 조정되고 차차 본인 스스로의 훈련을 통해 행동통제가 가능하게 되며, 이러한 자신의 언어는 자기훈련으로 내면화된다고 하였다.

초기의 자기지시 훈련의 잠재적 가치는 과잉행동, 충동적 학생의 결함에 대한 특성 연구에서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과잉행동·충동행동 학생들이 읽는 것이 주된 문제로 제기되어 왔고, 과잉행동 및 충동행동이 학습부진의 주요한 요인으로 논의되어 왔다.

자기지시 훈련은 언어적 통제를 통하여 문제 해결 스타일을 체계적으로 바꾸게 해 준다. 다시 말하면, 문제 상황에 대해 주의 깊게 반응하며 자신의 수행을 조절하기 위해서 자기 격려를 사용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이다.

2) 자기-지시 훈련 과정

자기-지시 훈련 과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

(Miechenbaum & Goodman)

- 1단계 : 먼저, 선생님이 소리 내어 말하면서 과제를 수행한다(인지적 모델링)
- 2단계 : 학생이 모델의 지시를 따라 하면서 같은 과제를 수행한다.
- 3단계 : 학생이 스스로 지시를 소리 내면서 과제를 수행한다.
- 4단계 : 학생이 과제를 해나가면서 스스로에게 지시를 속삭인다.
- 5단계 : 학생이 내면적 자기지시통제를 통해 자신의 수행을 안내하면서 과제를 수행한다.

이러한 훈련 과정을 선생님이 먼저 여러 번 보여 주고, 학생이 따라하면서 연습하게 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을 처음에는 소리를 내어주고, 나중에는 내면적으로 하는 것이다. 생각을 소리 내는 단계에서 모델인 선생님은 다양한 수행관련 기법을 보여주게 된다.

- 문제 경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지?)
- 주의 집중하고 지시에 반응 (진진히,해야지!)
- 자기 강화 (잘했어, 좋아)
- 대처 기술에 대한 자기 평가와 오류 수정 (그래, 비록 실수했지만 계속 진진히 하면 될 거야)

자신의 비언어적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자기-지시 훈련에서는 간단한 감각 운동 능력에서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까지 다양한 과제가 사용되었다. 중요한 것은 앞서 제시된 자기지시 훈련 과정을 단지 모델링 하기보다 학생이 반드시 연습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수행을 잘 했을 때 칭찬을 통해 강화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다. 학습부진학생 지도상의 유의점

1) 수업 진행시 유의점

- 중요한 과목은 되도록 오전에 가르친다.
- 수업 강의 내용을 5~10분 정도 이야기 한 후 간단하게 요약해 준다.
- 수업시간에 잠깐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준다.
- 학생과 교사의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주의가 산만할 때 주의도 주고 칭찬도 해 준다.
- 여러 가지 주의집중 관리 장비를 사용한다.
- 긴 지시 사항을 주지 말고 필요시 긴 지시 사항은 되도록 메모지를 사용한다.

2) 수업 내용 조정 시 유의점

- 학습 장애나 주의집중 결핍 학생에게 주는 학교의 과제를 중 반복적인 내용을 약간 준다.
- 재산을 요하는 시험은 시험 시간을 조금 연장해 준다.
- 수업 도중 흥미 있는 내용과 자극적인 내용을 적절히 섞으면서 가르친다.
- 학생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과제물이나 과목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을지의 방법을 가르쳐 준다(예 : 색깔을 이용한 관리).
- 시청각 자료를 적절하게 사용한다. 특히 주의결핍 학생들은 색깔에 민감하다.
- 학급에서 공부 잘 하는 아이와 짝이 되게 한다(예 : 포레 상암 및 포셀 이용).
- 학생 특성을 파악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 학생이 성공적으로 잘 할 수

있는 파체를 주고 잘하였을 경우 특권을 부여한다(예 : 심부름, 파체를 분해 등).

- 학생에게 지시를 줄 때는 꼭 시신을 맞추고 지시사항을 반복하도록 한다.

Ⅲ. 『기초학습부진학생 제로』■ 위한 노력

- 서울시의 사례■ 중심으로 -

1. 추진 배경

국가와 교육청, 학교가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모든 학생이 읽기·쓰기·기초수학의 기초능력과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최저 수준의 기본학습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학습부진학생을 위한 책·지정적 지원 및 책임 지도 강화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학생 등에 대한 교육)
- 기초·기본교육 강조 (제7차 교육과정)
-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06. 3)

2. 목적

- 학습이 가능한 모든 학생의 읽기·쓰기·기초수학의 기초능력과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최저 수준의 기본 학습 능력을 갖추도록 지도
- 학습부진학생 학력신장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 및 교육 격차 해소
-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기본능력을 포함한 국민 기초교육에 대한 국가·학교·교사의 책무성 강화

3. 추진 내용

가. 지도 대상 선별

- 1) 기초학습부진학생 선별
 - 초3 학생은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실시하여 선별(매년 10월)
 - 초4 학생은 전년도 10월 초3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 미달된 학생
 - 초5~고2 학생은 전학년도말 재평가 결과 미달된 학생
 - 초2~3학년 학생의 학년초 진단평가는 학교별 자체 계획에 의거 실시토록 하며, 학습부진이 누락되지 않도록 학급담임 책임 하에 기초학습 지도 철저

<기초학력 진단평가 및 재평가 비교>

	'07 기초학력 진단평가	'07 학년말 재평가
대상	초3	초4~고2 중 미달학생
영역	읽기·쓰기·기초수학	읽기·쓰기·기초수학
방법	국가수준 : 표진평가 실시	학교별 실시
시기	2007. 10. 11(목)	12월
문항 검과 활동	'07년 개발문항	'03 ~ '07년 개발 문항 활용
	표진평가 결과·분석	현황파악 및 분석·지도대책 수립

2) 교과학습부진학생 선별

- 지역청 및 학교 계획에 의거 교과학습부진학생 선별
 - 대상교과 :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문항 활용
 - 초등 교과별 기본학습 평가 자료 활용(2007.3월, 서울특별시교육청)

나. 기초학습부진학생 발생 예방을 위한 저학년 담임교사 책임지도

제 강화

- 1) 대상 : 초등 1~3학년
- 2) 지도영역 : 읽기, 쓰기, 기초 수학

3) 지도방법

- 철저한 기본 학습 훈련으로 학습 능력 높이기
 - 바르게 듣고 분명히 말하기
 - 글씨 바르게 쓰기
 - 학습용구 바르게 사용하고 정리하기
 - 학습 결과 정리하는 습관 기르기
- 기초·기본 교육 충실
- 학습 부진으로 인한 기초학습 부진학생 발생 예방 지도 철저
- 담임교사 책임지도 하에 다양한 방법 활용
 - 담임교사 개별지도, 학년별 팀티칭, 명예교사·자원봉사자 활용 등
- 저학년 담임 연장제 및 중임제의 효율적 운영

4. 기대되는 효과

- 학습부진학생의 기초학력 정착으로 자신감 회복 및 학습 참여도 증대
- 학습부진학생의 학력신장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 및 교육 격차 해소 기여
- 기초학력 보장을 통한 학교교육 만족도 제고

80 참고문헌 88

- 서울특별시교육청(2007), 대학생보조교사 연수 교재
- 서울특별시교육청(2007), 기초학력책임지도제 기본 계획
- 서울특별시교육청(2007), 학습부진학생 지도 특별지원 학교 교감 연수 교재

4.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내용독자

1. 한국어 정서법
2. 한글 맞춤법의 역사
3. 표준어란 무엇인가?
4.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익히기

1. 한국어 정서법

-한국어/국어/한글의 차이

예) 한글학교, 한국학교, 한글이 영어보다 낫다?, 국어도 제대로 못 쓰는 사람?

-정서법=철자법=맞춤법: 한국어를 바르게 쓰는 법

-어문규범(규정): 어문 말과 글을 아울러 이르는 말. 한글 맞춤법(1988), 표준어 규정(1988), 외래어 표기법(1986), 로마자 표기법(2000)

-어문 규범 전문

이희승·안병희(1989/2003), 한글맞춤법 강의, 신구문화사.

국립국어연구원 홈페이지: www.korean.go.kr 자료마당>공개자료실

2. 한글 맞춤법의 역사

-연철과 분철, 표준주의와 표의주의

- ① 훈민정음 당시
- ② 국문연구소(1907 學部 내)의 맞춤법통일안: 국문연구회정안(1909)
- ③ 조선총독부의 諺文綴字法: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1912. 4.)